

메이첸(Machen)과 한국 보수신학의 형성

G. Machen and Formating of Conservative Theology in Korea

김 의 환
(총 장/역사신학)

目 次

들어가는 말

I.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열과 메이첸

II. 메이첸과 그의 두 제자, 박형룡과 박윤선

2.1 평양신학교와 박형룡(朴亨龍)

2.2 고려신학교와 박윤선(朴允善)

개혁주의학술원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회는 1885년 이후 주로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그로 인해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미국 신학의 영향권 아래 성장하였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 신학은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교 가운데 대표적인 프린스턴 신학교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일어난 신학적 이변(異變)은 얼마 후 필연적으로 곧 한국교회에 그 파장(波長)이 파급되기 마련이었다.

본 논고는 1920년대 후반에 메이첸(Machen) 교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 논쟁에 뒤따른 신학교 분리사건과 그 결과 생겨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메이첸의 신학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한국 보수신학의 형성 차원에서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열과 메이첸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 오랫동안 신학교 논쟁으로 진통을 겪다가 1929년 드디어 분열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 분열의 직접적 원인은 어번 선언(Auburn Affirmation)¹⁾ 과 이사회 재조직에서 오는 세력 균형의 차질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분열의 중심에 메이첸(Machen)이 서 있었다. 프린스턴(Princeton)은 오랫동안 미국 장로교회 교단의 대표적 신학교였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Y)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락한 뒤에도 보수적 신학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 프린스턴의 신학적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1921년 핫지(Charles Hodge) 교수를 이은 워필드(B.B. Warfield) 교수가 서거하자 신학교 안에 새로운 개방주의적인 신학적 동향이 일기 시작하였다.

1914년 패튼(F.Patton)의 후임으로 프린스턴의 교장에 취임한 스티븐슨(R. Stevenson)이 워필드의 서거 후에 신학적 중도주의를 표방하며 신학적 개방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기 때문이었다.

그의 중도적인 입장이란 프린스턴 신학교가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인만큼 교단을 대표로하는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신학 입장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교단 내의 모든 신학 입장을 고루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당시에 교단 내

1) 어번 선언(Auburn Affirmation)이란 New York주 Auburn에서 1923년 12월 16일 모인 자유주의 성향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5대 교리는 교리적 가설로서 장로교 총회에서 목회자 지망생들이 강요되어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명함으로써 이룩된 신학적 선언이다.

일부 목회자들은 뉴욕주의 어번(Auburn)에 모여 작성한 자유주의적 신학입장을 따른 어번 선언(Auburn Affirmation)에 동조하고 서명까지 하였다.

그리고 어번 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신학 일변도의 신학 노선을 벗어나 교단 내의 신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신학교가 되기 위하여 이사회의 개편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스티븐슨 교장 자신은 복음적인 인물이었으나 교단 정치의 배려 차원에서 신학적 포용 노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티븐슨의 포용주의 정책은 워필드의 서거와 함께 급물살을 타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장직은 교수회의 사회자 정도의 권한 밖에 행사 할 수 없었으며, 그를 따르는 교수는 전체 교수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였다.²⁾ 그러나 1929년 이사회 개편 이후에는 학교의 CEO적 교장으로서 총회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학교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사회는 이원체제(二元体制)로 운영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전자는 신학교의 교육과 학사 문제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후자는 재정문제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운영 이사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고, 다수의 재단 이사들은 포용주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운영이 교장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 그런 와중에 총회가 특별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신학교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달라는 건의를 스티븐슨이 올리게 되었고, 드디어 두 이사회에서 단일이사회로 통합시키는 총회적 결정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929년 5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편된 단일이사회는 3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목사는 18명, 장로는 15명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스티븐슨이 단일 이사회를 통하여 신학교를 자기 소신껏 장악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 입장에서 있는 교수 중 주도격(主導格)인 메이첸(J. Gresham Machen)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것이다.

이미 워필드(Warfield) 교수의 후임으로 메이첸(Machen)은 변증학 정교수로 천거 받아 양 이사회의 승인까지 얻어서 총회 인준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2) 스티븐슨(Stevenson)의 동조 교수는 17명 중에서 John D. Davis., Richie Smith, Charles Eerdman, Loetscher 등 4명에 불과하였다.

3) L.A. Loetscher, *Broadening Church*(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 139.

스티븐슨이 교장의 진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교수 임명을 보류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임명 보류 요청의 이유로 메이첸(Machen)의 정교수 임명은 교수간의 불화스런 관계가 생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분위기가 호전될 때까지 임명 유보를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총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및 학생들을 개별 면담한 후 보수주도의 운영 이사회와 중도적인 재단 이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화와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두 이사회를 단일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⁴⁾

새로 재구성된 이사회원 가운데는 어번 선언(Auburn Affirmation)에 동조한 사람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는 이미 신학교의 조직 내에까지 미치고 말았다. 메이첸이 스티븐슨과 신학적으로 대립관계에 이른 또 하나의 이유는 워필드 서거 이후 스티븐슨의 포용주의와 맞서는 신학적 저술을 메이첸이 계속하여 출판하여 학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다.⁵⁾

메이첸은 특히 그의 저술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고 또 다른 종교일 뿐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포용하는 어떠한 입장도 단호히 반대하였다. 원래 이 책은 노회 장로들의 모임에서 시리즈로 설교한 설교내용을 좀 더 확대한 것을 출간한 것이다. 메시지를 들은 장로들의 강한 요청에 의하여 책의 형태로 나오게 되었다. 그 요지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유주의자를 경계하고 목회자를 모실 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첫째로 고려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 ‘기독교와 자유주의’

4) 「총회찰요」(1927) I. pp. 131-133.

5) 메이첸(Machen)의 주요 저서를 연대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The Origin of Paul's Religion(1921), *Christianity and Liberalism*(1923), *What is Faith?*(1927), *The Virgin Birth of Christ*(1930), *The Christian View of Man*(1937), *The Christian Faith in the Modern World*(1938).

마지막 장에서 이런 실천적 요청이 강조되었으며 이런 교회 쟁화적 차원에서 이 장(章)을 ‘교회’에 바친다고 하였다.

“교리적 차이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밝히는 유니테리안(Uniterian)들이 더 정직한 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교리를 비롯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믿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이첸의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유니테리안들의 반응은 메이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메이첸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다. 우리에게 그의 논리가 완벽한 것 같이 생각된다. ... 처음으로 그는 문제를 분명하고 명확한 형태로 말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신은 신자이거나 또는 불신자이거나 복음주의자이거나 또는 자유주의자이거나 어느 한 쪽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동시에 양쪽 모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메이첸 박사가 복음적인 교회 내에 자유주의를 따르는 자들(The Liberal Party)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은 서 있을 건강한 다리가 없다”⁶⁾

또 당시에 미국 언론계의 거장이었던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도 1929년에 도덕선언(A Preface to Morals)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대하여 극찬하였다.

“이 책은 칭찬할 만한 책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에, 그 두드러짐 때문에, 그리고 그 위트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정통 개신교를 옹호하는 것은 그 논쟁의 양쪽이 제시한 주장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주장인 것 같다. 우리는 메이첸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게 좋겠다. 자유주의자들은 그에게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⁷⁾

이렇게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선교부, 교단 및 신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방관시 할 수 없어 정면으로, 서책 출판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는 교단의

6) 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 A Biographical Memoir* - 홍치모역(서울, 그리스심, 2003) p. 458.

7) Ibid, pp. 458-459.

자유주의적 주도 세력과 새로 개편된 이사회에 의하여 제거 대상으로 각인이 찍히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메이첸의 결심 뿐이었다.

자유주의 신학 입장을 따르는 어떤 선언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참여하는 새로 개편된 단일 이사회 체재 아래 더 이상 보수적인 신학 입장을 고수할 수 없음을 판단한 메이첸은 23년간 봉직한 프린스턴(Princeton)을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하고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를 1929년에 그를 따르는 교수들과 함께 세웠다.⁸⁾

이 무렵 장로교의 대표적 신학교인 프린스턴(Princeton)을 떠나 새롭게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신학교를 세운 메이첸의 결단에 하여 미국 내 매스컴들은 동정적인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유력 일간지인 *New York Times*는 1929년 9월 26일자 신문에서 호의적이며 격려적인 기사를 실어서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⁹⁾

프린스턴 신학교는 1936년에 자유주의 신학자 맥케이(John A. McKay)가 스티븐슨을 이어 새로운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더욱 비복음주의적 신학교로 변질되어 갔다.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 참신한 목회자 양성과 옛 프린스턴의 보수 신학을 지키는데 힘썼으나 이미 좌경화된 장로 교단이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교단 내에 그대로 남겨 두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교단의 해외선교부가 하버드(Harvard) 대학교 호킹(W.E.Hocking)교수가 집필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8) 웨스트민스터 설립 당시 메이첸과 함께 프린스턴에서 옮겨와 교수로서 합류한 사람은 Robert Dick Wilson, Oswald T. Allis 그리고 Cornelius Van Til 등이었다. 학생으로는 프린스턴에서 재학생 20명과 신입생 30명 포함 50명이었다. 그 중에는 ICCC 회장인 Carl Mclyntire 와 Fuller 신학교의 초대학장 Ockenga도 포함되어 있었다.

9)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 Westminster was heralded as “the beginning of a great movement to resist, and, if possible, overcome the tendency toward modernism, and one which would be a reformation like that of the sixteenth century with a return to common honesty and common sense.”

한 *Re-thinking Mission*의 자유주의적 선교사상¹⁰⁾을 받아들인데 대하여 메이첸은 비판을 가하였다. 메이첸의 입장에 동조하여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메카트니(Charles E. Macartney)도 Hocking의 사상이 선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면서 비판하였다.¹¹⁾

이러한 포용적 선교 정책으로 인하여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 중에 예수의 신성(神性)과 속죄 구원 등 기본 교리를 믿지 않고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일이 허용됨에 따라 선교부에 대한 불신이 교단 내에 일기 시작하였다. 그 때에 자유주의적인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에서 교육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Pearl S. Buck이었다. 그녀는 소설 「大地」(*The Good Earth*)를 써서 일약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며 풀리처(Pulitzer)상까지 받음으로 문학적 대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Pearl Buck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미신적 교리들과 신학이론만을 가르침으로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¹²⁾ 그녀는 자신은 장로 교단의 교리를 다 믿지 않고 있으며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론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¹³⁾

교단 선교사로서의 노골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표출은 필경 교단내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메이첸이 앞장을 섰다. 메이첸은 비록 프린스턴에서는 밀려났으나 선교부만은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5대 교리를 믿지 않는 선교사들을 해임시

10) W.E.Hocking, *Re-thinking Mission: A Laymen's Inquiry After 100 Years*(New York, Harper And Bros, 1932), p. 19

*Re-thinking Mission*의 요지:

- (1)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지양할 것.
- (2) 진화론을 수용할 것.
- (3) 정통교리(성경의 영감, 지옥 형벌 등)를 부인하는 자들을 제재하지 말 것.
- (4) 모든 교단의 통합을 강조할 것.

11) C.E. Macarthy, "Renouncing Mission or Modernism Unmasked" *Christianity Today* (1933. 1월). p. 6.

12) Pearl S. Buck, "Is there a Case for Foreign Missions?" *Harper's Magazine*(1993. 1) p. 145.

13) *Ibid.*, p. 148.

킬 것을 청원하는 건의서를 그가 속해있는 뉴 브런스윅(New Brunswick) 노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33년도 총회는 메이첸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외지 선교부의 개혁 작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외지 선교부의 이사 중에는 어떤 선언에 서명한 목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부 내의 신학적 정화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맥엘리스터 그리피스(H. McAllister Griffith) 목사를 비롯한 보수노선을 따르는 목사들은 교단 선교부와 달리 독립 장로교 선교부(The 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 설립의 필요를 논의하였다. 결국 1933년 6월 27일 독립된 선교부가 탄생하였고 메이첸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 총회 안에 두 개의 선교부가 생긴 이후 총회는 교단 선교부의 신학적 재정비 작업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독립 선교부의 퇴출 작업에 주력하기에 바빴다. 1933년 맥도웰(John McDowell) 총회장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총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목사는 반드시 총회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34년부터 1935년까지 총회 산하의 각 노회에서는 독립선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을 차례차례 책벌하게 되었다. 메이첸과 그의 동조자들은 1935년 총회에 독립선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에 대한 책벌에 대하여 재심청원을 제출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고 말았다. 끝내 총회에서 축출된 세력들은 보수 총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1936년 6월 11일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아메리카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를 창립하고 초대 총회장에 메이첸을 추대하였다.¹⁴⁾

좌경화에서 시작된 신학 싸움은 신학교에서 교단 선교부로 무대를 옮겨가며 30여년 간의 긴 세월 계속된 끝에 보수 세력은 중과부적으로 교권 싸움에서 패배했으나 진리 수호를 위한 싸움에서는 결코 패하지 않았다. 진리는 결코 수적 다수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진리 때문이다.

니케아(Nicea) 회의에서 외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외침은 처음엔 외로운 소수의 외침이었으나 끝내는 진리가 승리하지 않았던가!

14) 아메리카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란 이름은 곧 정통 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OPC)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

얼마 전 *Times*지의 종교란¹⁵⁾에서 미국 장로교회를 포함한 주류 미국교단들의 교세가 계속해서 허락하는 반면 한때 극소수에 불과했던 소수보수교회가 점차 기성 주류교단을 교세 면에서, 개 교회 면에서, 사회적 영향 면에서 앞서 가고 있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성 교단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쉽게 미국 장로교회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70여년 전에 일어난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 현상에 뒤이어 계속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침 받아 배출된 목회자들이 이끄는 오늘의 미국 장로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II. 메이첸과 그의 두 제자, 박형룡과 박윤선

미국 장로교회가 1920년대 이후 어떤 선언 및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회 개편 이후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변질을 지켜본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교회의 자유주의신학 ‘쓰나미’(Tsunami) 현상이 한국교회에 미치지 않기 위하여 평양 신학교를 끝까지 보수신학으로 지키기 위해 힘쓰게 되었다. 이러한 정통신학 보수 운동의 최첨단에 나선 신학자는 평양신학교의 박형룡 교수였다. 박형룡은 이미 그의 모교 프린스턴의 좌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힘쓴 메이첸의 고투(苦鬪)를 지켜보았고 귀국 후에도 그의 은사인 메이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¹⁶⁾ 그는 평양신학교에 장차 교수 요원으로 지목한 그의 제자 박윤선을 미국 유학을 추천하면서 모교인 프린스턴에게 추천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에 추천하면 메이첸에게 친필로 박윤선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추천서를 써 보내기까지 하였다.¹⁷⁾ 그리고 박윤선이 귀국한 후 평

15) *Times*, May 22, 1989.

16) 장동민, “A Theological Biography of Hyung-nong Park”(1897-1978) Westminster Ph.D 학위 논문. 1998, p. 63.

17) *Ibid.* p. 64.

양신학교에 동역하도록 주선하였고 총회가 발간하는 표준 주석을 쓰도록 배려하였다.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된 후에는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동역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동역하다 후에 각각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를 교장으로 섬기며 메이첸에게서 배운 보수신학 운동에 매진하였다.

2.1 평양신학교와 박형룡(朴亨龍)

평양신학교는 1901년 평양에서 장로교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초창기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표방한 평양신학교는 1918년에 제도적으로 장로교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따랐다. 그 해부터 장로교 총회는 타 신학교를 졸업한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로교 목회를 희망하여 장로교회에 가입하여 목회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노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할 것과 평양신학교에서 1년간 신경(信經) 및 교회 정치를 배워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구미나 일본 등 외국에서 신학 수학을 마친 자들의 신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수주의 신학노선을 따르는 자에 한하여 장로교에서 수용하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총회의 신학노선에 따라 정통신학을 지키려 박형룡은 평양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최전선에 나섰다.

1930년대 평양신학교에는 이미 박형룡보다 앞서 한국인 교수로서 남궁혁(南宮赫) 교수와 이성휘(李聖徽) 교수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13년 평양신학교의 전임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한 박형룡은 선배 교수들보다 훨씬 더 강한 보수신학 수호의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처음에 그는 '변증학'과 '신학사상', '기독교윤리' 등 조직신학 주변의 과목을 맡아 강의하였다. 그는 1920년대 '어번 선언' 이후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치열한 논쟁 현장이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하였고 메이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에게 많은 영향과 감화를 받았다. 거기서 중도주의 노선을 표방하여 '어번 선언'을 따르는 자를 수용하려는 스티븐슨) 교장과 이를 적극 반대한 보수주의 신학자 메이첸과의 갈등과 마찰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대립 현상이 미국의 한국교회에도 특별히 평양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한 박형룡은 평양신학교를 보수주의 신학의 보루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미국 유학에서 귀국 후 잠깐의 목회경험을 쌓은 후 평양신학교에 입성하였다. 박형룡은 1918년에 평양신학교의 계간 학술지로 출발한 「신학지남」(神學指南)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학지남에 게재되는 논문들을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남궁혁 교수가 편집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신학지남은 주로 선교사들의 글들이 수록되었으며 신학적인 논쟁이 될만한 학적 논문이 별로 실리지 않은 채 「神學指南」보다 牧會指南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러나 남궁혁이 신학지남을 맡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신학적 중도주의(中道主義)를 따른 남궁혁이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김재준과 송창근의 글들을 1932년부터 신학지남에 소개함으로써 신학지남의 지남방향(指南方向)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송창근은 1932년부터 1935년 사이에 10편의 논문을 신학지남에 게재하였다. “말씀에 대한 默想”이란 글로 시작된 그의 논문들은 말씀에 대한 발트주의적 해석으로 신정통주의적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1933년 김재준의 “옴기에 나타난 靈魂不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은 교단 내의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 자극제로 충분하였다.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예수 처녀탄생에 대한 그의 글에서 처녀보다는 ‘젊은 여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그의 주장이 예수의 처녀탄생에 대한 사도신경적 고백을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도합 여덟 편의 글들은 교단 내의 급격한 신학적 기류 변화를 체감하기에 충분하였다. 1920년대 프린스턴의 중도주의에 격분한 메이첸을 본받아 박형룡은 끝까지 침묵하고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분연 선배인 남궁혁 교수에게 항의하고 신학 편집 위원 중에 하나인 자기에게 전혀 문제된 논문들을 상의 없이 게재한 편집인에게 김재준과 송창근의 글을 앞으로 실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박형룡의 이러한 반자유주의적 결연한 태도 때문에 그는 ‘한국의 메이첸’으로 불려지게 되기도 하였다.

신학지남 편집 위원회는 박형룡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송 두 교수의 글들

을 더 이상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신학지남의 30년대 ‘필화사건’은 김재준과 송창근의 신학지남과의 신속한 결별 조치를 계기로 일단락이 되었다. 그 후로 김재준은 후지 교육차 북간도로 송창근은 목회자를 찾아 부산진으로 떠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신학지남의 좌경적 필진(筆陣)이 떠났다고 해서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이 보수신학의 탄탄한 원궤도 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한국선교 50년을 맞는 1934년에 또 다른 신학적 이상 기류가 장로회 총회 안에 흐르기 시작하였다. 남대문(南大門) 장로교회를 담임한 김영주(金英珠) 목사가 모세의 오경(五經) 저작을 부인하는 논설을 발표하는가 하면 함경도 성진 장로교회에서 목회한 김춘배(金春培) 목사는 여자를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여권(女權)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거나 잠잠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대 고린도 교회의 지방문화적인 특수사정이나 적용되는 것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무렵 자유주의 신학으로 일관된 「아빙돈 단권주석」(Abingdon Bible Commentary)이 출간되었다. 이 주석 번역에 장로교회의 중진 목사들이 참여한 사실로 총회는 신학적 정지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총회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러한 일들에 관여된 목사들의 신학적 실사(實査)를 하게하였다. 교단의 이러한 보수적 신학 정립 작업에는 항상 박형룡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신학적 혼란 속에서 박형룡은 「기독교 근대신학 난제선평」(基督教 近代神學 難題選評)이란 책을 저술하여 총회가 가야할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총회적으로는 아빙돈 단권주석 출판에 따른 자유주의 신학적 성경 해석에서 오는 강단의 오염을 염려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총회적으로 표준성경주석을 편찬할 것을 결의하였다. 선교사들의 협력을 얻어 한국인 교수로서는 박형룡을 편집위원으로 임명하여 칼빈주의 입장 내 근거한 표준적 성경주석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박윤선의 참여도 뒤따랐다.

박형룡은 표준주석의 5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학구적 목적 ②성경 본문과 저자의 치중 ③주석의 실용적 목적 ④전통적 신학 사상 ⑤교리신앙의 표준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1934년 5월 1일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로 평양 신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 25인을 선정 집필진 교섭에 들어갔다. 이렇듯 서구 신학의 변질에 뒤따라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쓰나미’(Tsunami) 현상을 막아보려는 총회적 신학 작업의 현장에는 항상 박형룡이 있었다.

이처럼 안으로 평양신학교와 총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신학논쟁은 신속한 대응으로 일시적이거나 잠재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밖으로 새로운 시련의 암운(暗雲)이 한국 교회 전체 위에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다른 아닌 한국 교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의 강요였다. 드디어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강요와 박해를 견디다 못해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다. 이어서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자진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선교사, 교수들은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남궁혁은 중국으로 박형룡은 일본을 거쳐 만주 봉천(지금의 심양)으로 각각 망명길을 떠나고 말았다. 교사는 문을 닫고 교수는 뿔뿔이 흩어진 평양신학교는 일제하에서는 다시 재건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신학교육의 공백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박형룡에 의해 평양 신학교의 교수직에 진입할 기회를 상실한 좌경 신학자들은 서울에 조선인에 의한 새로운 신학교 곧 구미 신학과 호흡을 같이하는 탈(脫) 평양신학적 신학교를 세울 것을 추진하였다.

그 결실로 조선신학교가 서울 승동교회 교육관에서 시작되었다. 이 신학교가 오늘에 한국 신학대학원 대학교이다. 이 새로운 조선신학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정통주의적 평양신학교의 신학 노선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출발하였다.

조선신학교 설립에 대하여 기독교장로회에서 출간한 「한국기독교 100년사」는 신학적 이유 외에 평양신학교의 폐교로 인해 발생한 교역자 양성의 필요차원에서 세워진 것으로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되자, 오랫동안 선교부의 선교정책과 근본주의 신학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주목해 오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숙원이었던 신학교육의 이념을 살려보고 또 교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교역자 공급을 위해 1939년 서울에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신학교의 출발이 선교사들의 보수신학에 대한 김재준의 불만에

서만 기인된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평양신학교가 선교사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북중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권이 편중되어 있는데 대하여 비서북권 특히 호남과 함경도 출신 지도자들의 지역주의적 정서와 반감이 작용하여 서울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데 쉽게 뜻을 모을 수 있었다.

특히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 지역이었으므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자유주의적인 신학 성분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타지역에 비하여 일찍이 파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인 김재준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조선 신학교 설립에 참여 및 지원을 했고 오늘의 기독교장로회의 주도적 역할을 함경도 및 호남 특히 군산 목포지역 목회자들이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김재준도 도미유학 중 웨스턴 신학교(Western Seminary) 이외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그 때에 메이첸 교수 밑에서 수학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메이첸의 신학자로서 탁월함을 인정하기까지 하였으니 그는 메이첸의 정통신학을 수용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이미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靑山)의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입었고 프린스턴 유학에 앞서 도미 후 웨스턴 신학교에서 먼저 배운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적 지향성(指向性)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만약 그의 프린스턴 신학 중에 메이첸의 영향을 박형통처럼 받아서 귀국하였더라면 한국의 오늘의 신학적 판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역사는 가정(假定)을 허락한 해석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재준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메이첸과 만남이 그의 신학적 방향을 바꾸는데 일조하였다면 폐교된 평양신학교의 대안으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를 ‘총회신학교’로 단일화 시킨 총회적 조치에 김재준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로회 신학교와 조선 신학교는 발전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 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한 한경직만 조선신학교를 떠나서 총회신학교로 옮겨오는 결단을 내렸다.

조선신학교가 김재준을 중심으로 설립되는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조선신학교를 탈(脫)선교사 중심의 신학교로 세우려 하는데도 신학적 이유뿐

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신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장로회 선교회가 채택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여 졌기 때문이었다.

남장로교회의 레이놀즈(W.R. Reynolds : 李訥瑞)가 제시한 한국 교역자 양성 원칙의 3항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역의 교역자 양성에 있어서 “적어도 선교사업 초기에는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지 말 것, 선교사가 함께 살고 일해야 할 사람들(교역자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우려가 있는 훈련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들과 본토인들 사이에 사고와 생활의 간격이 생김으로 인해 종종 선교사들은 곤혹해한다. 아직 간격이 생기지 않는 곳에서는 간격을 벌리지 말아야 한다”¹⁸⁾

바로 이 대목이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선교사들의 목회자 교육 정책을 비판한 부분인데 곧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한국인 교역자의 수준을 하향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역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 사람에게 의한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¹⁹⁾

이렇게 하여 신학적 세계화와 탈선교사의 정책을 표방하여 세워진 조선신학교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없이 발전하였다.

해방 후 1946년에 남부 총회에서 총회직영신학교로 인가를 받고 1947년엔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신학교 인정을 받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는 교단 소속을 같이한 함태영 부통령의 배려로 신학교로서 맨 먼저 대학인가를 받고 교명을 ‘한국 신학 대학’으로 개명하였다.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성경의 학문적 비판과 신학의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며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의 선진적 방법론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에 충격과 반발을 일으켰다. 반발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났다. 이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하던 51명의 신학생들이 1947년 제33총회에 건의서를 제출함으로 시작되었다.²⁰⁾ 이들은 김재준 교수의 가르

18) 「基督教史學研究」 4집(1997,6) “보수신학의 역사적 조명” p. 7.

19) Ibid. 1집 pp. 223-224.

20) 신학적 건의서를 총회에 제출한 51명의 학생들은 손두환, 김준곤, 정규오, 조동진,

침이 지나친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 총회의 신학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달라는 건의서였다. 그들은 그 후 조선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여 조선신학교를 떠나 고려신학교로 편입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들의 고려신학교 선택은 조선신학교의 신학입장과 대비(對比)되는 고려신학교의 신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신학교가 그 당시 한국교회의 정통신학 보수의 대안(代案)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²¹⁾

2.2 고려신학교와 박윤선(朴允善)

메이첸의 또 하나의 제자로서 한국교회 보수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는 박윤선이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진데 반발하여 메이첸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생겨지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1940년에 한국에서 평양신학교의 보수신학에 반발하여 김재준을 중심으로 조선신학교가 생기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 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조선신학교는 해방과 함께 재빠르게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신학교의 대안으로 평양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이은 새로운 보수적 신학교의 탄생이 불가피하였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자진 폐교한 평양 신학교의 대안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한 조선신학교에 맞서는 새로운 신학교는 마땅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보수신학을 따르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워져야 마땅한 일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지 않았던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된 주남선(侏南善)과 한상동(韓商東)은 일본이 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할 것을 내다보고 옥 중에서 미래의 한국교회 재건을 위하여 함께 전략적인 재건 방안을 구상하였다.²²⁾ 평양 감옥에서의 이들의 구상

신복윤, 박요한 등으로 후에 합동총회의 중진들이 되었다.

21) 이영현,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키클디아사, 1980), p. 242.

22) 한상동, 「주님의 사랑」(부산: 성문사, 1954) pp. 45-46.

이 바로 고려신학교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상은 해방 후 이들의 출옥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꿈의 현실화가 바로 부산의 고려신학교였다.²³⁾

1946년 5월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등의 출옥 목사들이 경남 진해에 모여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6월 23일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박윤선의 인도로 3개월간의 제1회 신학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고려신학교의 요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려신학교는 설립 초부터 평양신학교의 정통성 계승의 기치를 내세웠다. 그런 뜻에서 평양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박형룡을 교장으로 모실 것을 결정하였다. 그 당시 박형룡은 만주에 머물고 있었기에 송상석을 만주로 보내어 선편으로 그 가족과 함께 모셔오도록 파송하였다. 그러나 귀국이 많이 지체됨으로 박윤선을 교장 서리로 하여 1946년 9월 20일에 고려 신학교를 부산에서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송상석이 만주 봉천(지금의 심양)으로 두 차례나 목숨을 걸고 다녀온 끝에 박형룡은 그 가족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 해 박형룡은 10월 14일에 고려신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때 교수로 박형룡, 박윤선, 한부선 등이 있었으며 3명의 강사가 가담되었다. 교수들은 모두 메이첸의 직접 제자들이었기에 메이첸의 보수신학은 고려신학에 처음부터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려신학교를 도운 선교사들은 전원 메이첸이 세웠던 '독립 장로회 선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계의 메이첸이 초대 총회장이었던 '정통 장로교회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다. 박형룡은 그의 취임식에서 "사도적 신학 소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석한 취임사를 통하여 정통신학 확립을 역설하였다.²⁴⁾ 박형룡은 교장직을 수락하기 전에 설립자인 한상동과 전국교회를 상대하여 신학교를 섬긴다는 것과 정통신학 노선을 따른다는 일반론에 합의하였으나 총회소속으로 귀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신학교를 서울로 옮길 것인지 외국 선교회를 남,북장로회 선교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선교협력을 구할 것인지 등 전략과 현실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 채 출발하였

23) Ibid.

24) 남영환, 「한국기독교 교단사」, pp. 302-303.

다. 처음부터 고려신학교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확립과 교회재건의 이상을 가진 몇몇 출옥 목사들의 소명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장로교회 전체의 직접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총회의 치리와 교권 밖에 사립학교로 시작하였다.

어쩌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의 독립신학교 설립이념과 경영철학을 따름으로서 교단의 신학노선 변화에 신학교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결단이 작용했는지 모른다. 신학교를 교단의 지배와 통제 밖에 둬서 정통신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메이첸이즘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신학교의 운영철학은 박형룡과 한상동 사이에 시각의 차이를 처음부터 불러일으켰다. 한상동으로서는 총회 안에 자리잡고 있는 리더쉽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전에는 고려신학교를 교단의 간섭 밖에 두고 싶었다.

박형룡은 한상동의 이러한 신학교 운영의 메이첸이즘을 이해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총회를 떠난 신학운영이나 서울을 도외시한 지방에서의 신학교 위치 등에 관하여 한상동의 의견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조선신학교에서 편입한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장로회신학교를 세워달라는 집요한 요구, 전국교회를 상대해야 된다는 대세주의(大勢主義) 그리고 역사적 장로교 선교부와 거기에서 따라오는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기에 박형룡은 고려신학교를 1년만 섬기고 교장직을 사임하고 상경하고 말았다.

상경 후 박형룡은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였고 남북 장로교 선교부와의 관계를 복귀시키며 고려신학교에서 상경한 51명의 신학생을 중심으로 남산에서 새롭게 출발하였다.²⁵⁾

이러한 사건의 결과에 결국 고려신학교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장로교 보수 세력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⁶⁾ 갑작스런 박형룡의 상경에서 오는 충격은 고려신학교의 2대 교장으로 박윤선을 신속히 취임케 함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1948년 5월에 교장으로 취임한 박윤선은 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

25)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3) pp. 153-155.

26) 남영환, p. 307.

신학생들에게 커다란 감화를 끼치며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박형룡의 추천을 따라 프린스턴보다 웨스트민스터로 유학을 떠났다. 웨스트민스터 1차 유학에서 그는 메이첸 슬하에서 신약학을, 2차 유학에 반틸(Van Til)로부터 변증학을 배우고 귀국하였다. 고려신학교에서 53년까지 가르치다 다시 개혁주의 신학을 폭넓게 배우기 위해 화란 자유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유럽의 칼빈주의 신학을 널리 섭렵한 후 귀국하여 계속하여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수주일(聖守主日)에 대한 의견차이로 1960년 가을에 14년 동안 몸담았던 고려신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그가 고려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채플에서 설교할 때 확신에 찬 정열적 강의와 설교로 학생들에게 매혹에 가까운 감동을 주었다.

그는 프린스턴의 워필드(B.B. Warfield), 웨스트민스터의 메이첸(J.G. Machen)의 사상과 함께 화란의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스킬더(K. Schilder), 그레다너스(G. Greydanus) 등의 신학을 소개하고 가르침으로 고려신학교에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의 폭넓은 개혁주의 신학의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 미국 일변도의 종전의 유학선(留學先)을 화란으로 옮겨 구미의 개혁주의 연구를 위해 출국했다. 이근삼, 차영배, 강유중, 양승달, 정성구 등의 화란계 신진 학자들을 배출하는 데 길을 여는 공을 세웠다.

그가 가르치는 과목은 주로 주경 및 변증학이었으나 때로는 현대신학비판을 비롯한 교의신학 분야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특히 칼 바르트(K. Barth) 비판을 위해 「발트의 로마서 주석평」이라는 책까지 저술하였다.²⁷⁾ 그는 은퇴 후에 그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세를 이렇게 술회하였다.

“나의 교수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 신학이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말씀의 신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말씀의 단맛을 체험했으므로 후학들에게 나의 깨달은 바 성경진리를 전해줌에 있어

27) 박윤선의 서거 후 합동신학교 교수들에 의하여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 「개혁주의 교의학」을 출판한 바 그의 폭넓은 신학 이해를 입증하는 신학총서이다.

서 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뿐 아니라 나 자신은 부족하면서도 신학도들에게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진실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그리고 또 신학생 시절에 참되이 노력하여 실력 있게 졸업해야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 한평생 자타(自他)를 속이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²⁸⁾

박윤선 이야말로 한상동의 청교도적 의지를 신학화하고 고려신학교의 영성과 학문을 함께 발전시킨 ‘Mr. 고신’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려 신학교의 신학이란 박윤선의 신학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박윤선을 논할 때 또한 그의 성경주석 작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교회가 단순한 근본주의적 이거나 세대주의적 성경 이해를 초월하여 범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주석을 할 필요성을 깨닫고 일생을 주석 작업에 헌신하였다. 미국정통장로교의 기관지는 1939년 4월호에서 박윤선이 깨달은 칼빈주의적 주석작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보다 높은 단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칼빈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칼빈주의는 성경진리만큼 참으로 인간의 심령에 체계 있게 전달 해 줄 것이다.”

박윤선은 칼빈주의적 입장에 선 주석 작업을 필생과업으로 추진하던 중 1979년에 신구약 주석을 완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그는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주석자요 옛 평양신학교의 근본주의적 벽을 넘어선 개혁주의적 주석가요 신학자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그의 로마서 주석에선 바르트와 부룬너의 신정통신학을 비판하면서 소개하였고 미국의 구 프린스턴, 화란의 자유대학 및 감펜신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비교하며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보수 신학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후학을 위한 계몽적 역할을 감당하였다.²⁹⁾

2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p. 147.

29)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p. 295.

이제 끝으로 지적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수신학 형성에 영향을 크게 끼친 메이첸을 논하였고 한국에서의 반응을 다루었다. 56세의 젊은 나이로 타개한 미국의 한 신학자 메이첸, 그것도 50세가 되기도 전에 가르치던 프린스턴에서 퇴출되어 몇 사람의 동료교수들과 56인의 따르는 적은 소수의 신학생을 이끌고 필라델피아의 작은 사무실 빌딩을 빌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보따리 신학교’같이 출발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가난한 신학자,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외로운 독신교수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날 한편으로 그렇게도 일부 교계에서 보수주의 신학의 교부적 추앙을 받으며 또 한편으로는 독선적 분리주의자로 지탄을 받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한국교계에 지난 70년 동안 메이첸 밑에서 배운 세 신학자들 곧 박형룡과 김재준, 박윤선 이들에 의해 주도된 총신, 한신, 고신이 오늘날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의 끼친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비록 메이첸에게서 직접 배우지 못하였어도 그가 세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이 열거한 대표적 세 신학교 외에 아세아 연합신대의 명예총장 한철하, 총신대의 김의환, 김의원, 김인환 역대 및 현 총장들, 개혁신대 총장 손석태, 광신대의 정규남 총장 등이 한국교회에 끼치고 있는 신학적 리더쉽을 고려할 때 메이첸 신학의 직·간접적 영향은 적어도 한국교회 보수신학계에서만은 독보적인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장신대가 배제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함께 애매하게 수용하여 온 장신대의 신학노선에서 그 설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곧 일부에서 지적하여 온 것처럼 메이첸이 과연 분리주의자였으며 근본주의자였느냐? 만약 메이첸이 어번선언 사건과 1929년 이사회 개편 후 프린스턴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 그 물결을 그대로 타고 갔었으면 그는 프린스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노회에서 축출된 것도 ‘독립 장로교 선교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되었기 때문이다. 분리가 아니라 축출이었다. 왜 메이첸이 독립선교회를 조직하였는가?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중에 예수의 신성(神性)과 기독교복음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을 소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을 그대로 교단 선교사로 지원을 교단선교부에서 계속함으로 메이첸은 복음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만 지원하겠다고 독립선교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선교회를 조직하도록 원인제공을 한 것은 교단이었지 메이첸이 아니었다.

그를 근본주의자로 지탄하지만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여 성경의 근본적 교리를 믿는 점에서 '근본주의자'이었지 칼 맥킨타이어(Carl McIntyre)나 밥 존스(Bob Jones)와 같은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보수적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온건한 신학자였다. 그는 성경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차라리 예수의 신성과 부활을 믿는 카톨릭 신자가 더 가까운 형제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정가(政街)와 국회에서는 '우리의 주적(主敵)이 누구냐? 주적 논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땅히 한국교계에서도 '주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면 처음부터 교회가 믿어온 사도적 신앙을 따르며 그대로 전수하는데 무엇이 가장 방해요소가 되었느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주적을 바로 분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역주의, 영웅주의 등이 분열의 요인이 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사도적 신앙'에서의 탈선을 불러온 성경불신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이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주적'이다.

종교개혁의 요인 추적도 신학적 맥락에서 찾아야 하듯이 한국 교회의 분열과 신학적 혼란의 원인도 메이첸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메이첸이 믿은 정통신앙을 버린 자유주의 신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Bibliography

- L.A. Loetscher, *Broadening Church* 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E. Hocking *Re-Thinking Mission : A Laymen's Inquiry After 100 Years* (New York, Harper and Bros, 1932).
- C.E. Macarthey, "Renouncing Mission or Modernism Unmasked" *Christianity Today* (1933. 1월).
- Pearl S.Buck, "Is There a Case for Foreign Missions?" *Harper's Magazine* (1993.1).
- N.B. Stonehouse, *J.Grarham Machen*, Grand Rapids; Eerdmans,1954.
- 장동민, "A. Theological Biography", 1998.
- 한상동, 「주님의 사랑」, 서울: 성문사, 1954.
- 이영현,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0.
- 남영환, 「한국기독교 교단사」.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3.
- 홍치모,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